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강 진 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협동학습을 활용한 수필 교육 연구

-제 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수필을 중심으로-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임 아 영

협동학습을 활용한 수필 교육 연구

-제 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수필을 중심으로-

강진호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임 아 영

인 준 서

임아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개한 '2010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상대와 협조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영역에서 비교 대상 36개국 가운데 35위에 머물렀다고 한다. 즉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인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국어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수필작품을 통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작가의 체험과 비판적인 안목을 배우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가 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수필 교육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수필 교육에 있어서 좀 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접근한 결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위에 참여하면서 국어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타인과 원만한 유대감도 기를 수 있는 협동학습이 수필 교육을 하는데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수필교육에 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수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협동학습을 활용한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협동학습의 이론적 배경과 수필교육의 목표와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수필교육에서 협동학습을 활용하는데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필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 7차 고등학교『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수필 작품에 대해 서술 형태와 진술방식, 제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 후에 협동학습을 활용한 수필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작품을 선정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동학습을 활용한 수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업의 주제와 목표에 따라 협동학습 모형을 자유롭게 다듬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사의 노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의 수필 교육이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 아래 이루어져 온 점을 생각해보면 좀 더 적극적이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논의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6
3. 연구 방법 및 범위 ····· 9
Ⅱ. 협동학습과 수필 교육 ····· 12
1. 협동학습의 특성과 모형 ····· 12
1) 협동학습의 의미 ····· 12
2) 협동학습의 특성과 모형 ····· 16
2. 수필 교육과 협동학습 ····· 24
1) 수필 교육의 의의 ····· 24
2) 협동학습과 수필 교육 ····· 28
Ⅲ. 제 7차『문학』교과서의 수필 수록 양상 ····· 31
1. 수필 수록의 양상 ····· 31
2. 수필의 특성과 의미 ····· 36
1) 제재와 주제 ····· 36
2) 서술 형태 및 진술 방식 ····· 40
Ⅳ. 협동학습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 45
1. 교과서에 제시된 지도방안 ····· 45
1)「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의 교과서 수록 양상 ····· 47
2. 협동학습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 ····· 52
1) 수필교육에 적합한 협동학습의 교수-학습 모형 ····· 52
2) 교수-학습 지도안 ····· 59
Ⅴ. 결론 ····· 63

<표 차례>

표 1 > 협동학습 모형의 분류 ····· 19
표 2 > 제 7차 고등학교『문학』교과서 현황 ····· 32
표 3 > 제 7차 고등학교『문학』교과서 수필 수록 현황 ····· 32
표 4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수필의 제제 ····· 36
표 5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수필의 갈래, 성격, 주제 ····· 37
표 6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수필의 서술 형태 ····· 41
표 7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수필의 진술 방식 ····· 43
표 8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문학의 수용과 창작' 수록 작품 ··· 46
표 9 > 대단원 'Ⅳ. 수필의 수용과 창작' 지도 계획 ····· 48
표 10 >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 작품에 대한 학습활동 ····· 49
표 11 > 협동학습의 적용 절차 ····· 52
표 12 > 읽기 쓰기 통합 모형 수업 절차 ····· 54
표 13 > 팀 인터뷰하기 활동 구조 ····· 55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목적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관련 지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 등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관계를 맺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서 연구진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육과 육성 정책이 주로 지적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둬왔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균형잡힌 청소년 발달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공적 신뢰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율성을 개발할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1]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인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어과 교육은 작품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경험할 수 있고, 학습자가 겪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에 국어과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2]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문학은 예술적 가치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

1) 2011년 3월 27일 서울경제, 한겨레 사회면 기사 참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개한 '2010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보고서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상대와 협조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영역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비교 대상 36개국 가운데 35위에 머물렀다. 한국 청소년은 이번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연구에서 지역사회단체와 학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 실적의 비중이 높은 '관계 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부문의 점수가 모두 36개국 중 최하위(0점)였다.

2) 본 연구에서 말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란 "실제 수업 전개를 위해 교수자가 어떤 수업 모형이나 기법 등을 적용하여 구성한 구체적인 수업 계획"을 말한다.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도서출판 역락, 2007. p.30.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학을 통해서 인지적·정의적·미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고양하는 동시에, 문학을 매개로 해서 문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된다. [3] 이처럼 문학은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동체와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교육의 목표가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인데 비하여,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와 감상뿐만 아니라 '문학의 수용과 창작' 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영역은 작품을 읽고, 그것을 학습자의 측면에서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재구성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문학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의 다양한 장르가 있다. 그중에서도 수필은 누구나 친근하게 접할 수 있고 작가의 체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필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삶에 대하여 성찰하는 글쓰기가 이루어지므로 다른 장르보다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직접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수필 교육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형성을 위한 교육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수필 교육은 텍스트에 나타난 가치를 찾는 활동에 주로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겪어왔던 청소년기의 수필 교육은 글 제재에서 수필의 특성을 찾거나 학습활동을 통해서 소재에 대하여 비슷한 경험에 대한 글쓰기가 전부였다. 학습자가 스스로 수필을 읽고 느낀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고 글을 쓴 후에 자신의 글에 대한 평가나 다른 친구의 글을 읽어 볼 활동이 부족했다. 현재에는 비교적 다양한 제재들과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필에 대한 수업은 강의식 수업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글쓰기 후에도 자신의 글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필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

3)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 인적 자원부, 1997. p.307.

고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동학습을 활용한 수필교육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토의·토론 학습은 리더의 영향력이 중시되어서 리더가 미숙하면 효과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힘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협동학습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동일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의 학습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협동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혼자서 학습하는 것보다 여럿이 학습 하였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즉, 협동학습은 모둠을 구성해 서로 협동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로부터 배우는 학습 효과가 매우 크고, 협동학습을 통해서 사회응집성과 협동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교과에서도 협동학습을 활용하여 수업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 있으며,[4] 학업성취도나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5] 그러나 국어과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다른 교과에 비하여 연구가 활발하

---

4) 김경복,「중학교 과학 문제풀이에 적용된 협동학습이 과학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정옥,「중학교 사회과에서 웹 기반 협동학습이 학업성취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 교육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한지은,「협동학습 활동을 통한 미술과 수업의 교육적 효과 : 만들기와 꾸미기 영역 중심으로」,전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5) 김수진,「구조중심 협동학습이 초등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경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박일수,「협동학습이 학업성취도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안수경,「협동학습유형, 작동기억, 메타인지 수준이 학업성취도, 인지공유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조현진,「STAD 협동학습을 통한 과학과 학습 부진 학생의 지도 효과」, 공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특히 수필교육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수필작품을 통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작가의 체험과 비판적인 안목을 배우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가 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수필 교육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필 교육에 있어서 좀 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접근한 결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위에 참여하면서 국어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타인과 원만한 유대감도 기를 수 있는 협동학습이 수필 교육을 하는데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협동학습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제 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린 수필 작품을 분석하여 협동학습을 활용한 수필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수필 교육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수업을 만들고자 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학습에는 매우 다양한 수업 방법이 있어서 수필 작품에 따라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작품에 따라서 적절한 수업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 수필 교육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수필에 대한 연구는 소설이나 시에 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작가의 수필에 관한 논의나 수필 장르 자체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수필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1990년대 이후부터 교육 대학원 학위 논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논문들은 대부분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수업 모형을 연구하거나, 읽기나 쓰기 등의 언어 사용 기능과의 관련성을 모색하는 것이 많다.

수필 교육에 관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수필 지도 연구 중에서 구체적으로 교수-학습모형을 제시한 연구이다.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먼저 교과서에 수록된 수필 작품들을 분류 및 분석하고, 기존의 수업모형들을 참고하여 수필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6] 각각의 논문들은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들을 고안하였는데 그 중에서 토의 학습 모형을 제시한 논문[7]들이 눈에 띈다. 수필교육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개별학습 보다는 소집단을 토의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

---

6) 강현희,「수필 수용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희경,「수필교육의 효율적 방안 연구 : 제 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민경신,「수필 문학 교육 방법론 고찰 : 중등학교 수필 교재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임경심,「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수필 분석 및 지도 방향 연구」, 대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성수,「수필 지도에 적합한 수업 모형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정연화,「수필의 장르적 특성과 교수 학습 방법 :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수필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선미,「교육연극을 활용한 수필 지도방안 연구 : 7차 중학교 국어교재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조장현,「중학교 수필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7) 김희경, 민경신, 조장현의 논문

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효과적인 내면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학습 모형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작품을 좀 더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수필 창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수필 읽기 지도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수필의 자유로운 형식을 고려한 능동적인 읽기를 통해 학습자의 내면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목적을 두고, 필자와 독자와의 의사소통 실현을 위해 비판적 읽기를 적용한 박지영[8]의 논문과 수필이라는 읽기 자료의 특성과 교육 목표 분류를 적용하여 수필 읽기 지도 요소를 선정하고 문학적, 비문학적 양 측면에서 읽기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박덕영[9]의 논문이 있다. 하지만 박덕영의 연구는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읽기 과정에 관계되는 모든 요인을 수필 읽기 지도 요소로 선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수필 쓰기 지도에 관한 연구이다. 수필 쓰기 지도를 직접 현장에 적용하여 수업 사례와 적용 결과를 보여준 논문[10]과 수필 쓰기 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 작품을 예로 들어 실제 적용 과정을 보여준 논문[11]이 있다. 특이할 만한 논문으로는 글쓰기에 부담을 덜어주고, 문학이 주는 삶의 의미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아 바라보기'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과정중심의 쓰기와 대화 중심의 쓰기를 토대로 글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 김지은의 논문이 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수필 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문답과 토의의 과정을 거쳐 수필 쓰기를 하고

---

8) 박지영,「수필의 비판적 읽기 지도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9) 박덕영,「수필 읽기 지도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0) 이하나,「고등학생 수필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홍지연,「쓰기와 수필의 통합적 교육방법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1) 김주연,「수필 창작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지은,「'자아 바라보기'로서의 수필 쓰기 교육 방안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최소운,「수필쓰기 교육의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상호평가를 통해서 수필쓰기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이하나의 논문은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그 결과들을 볼 수 있는 발전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방법이 학생들의 집중도를 계속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수업 시간 내에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 남는다.

넷째, 수필 읽기-쓰기 통합 지도에 관한 연구[12]이다. 언어 능력은 어느 한 영역만이 독자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라고 볼 때 이상적인 언어 학습은 여러 영역이 통합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읽기-쓰기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읽기-쓰기 통합 모형은 수필 쓰기에 앞서 수필을 읽고, 작품에 대한 성격의 파악을 통해 수필 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혜인은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지만 한 학급의 남학생들에게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밖에 학생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연극적 기법을 적용하여 역할극과 토의극을 통해, 교육 연극의 각색 작업을 통해 협력 학습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수필 지도 방안 연구[13], 수필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 즉 인성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인환 외의 모형의 기본 틀로 하여 가치명료화 모형을 적용시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한 연구[14] 등이 있다.

---

12) 이혜인,「수필 교육을 위한 읽기-쓰기 통합 모형 연구 : 7~9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한수미,「수필을 통한 읽기·쓰기 통합 지도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3) 조선미,「교육연극을 활용한 수필 지도방안 연구 : 7차 중학교 국어교재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4) 조영수,「인성교육을 위한 수필지도 교수-학습 방법 연구」, 신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크게 수필 작품을 분석하여 수필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거나, 수필을 읽기나 쓰기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하나의 소재로 활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수필 작품을 분석하여 수업 모형을 제시한 논문들은 수필의 특징인 작가의 고백과 자기 성찰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실제 수업 사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수필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다른 장르에 비해 그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수필 교육에 관한 연구의 분석 대상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다양한 학년과 다양한 작품의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필의 장르적인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필 교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필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해 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연구 대상이 중학교 교과서에 편중되어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수업 현장의 측면에서도 중학교 교실에서 행해지던 많은 활동적인 수업들이 고등학교에 와서는 지나친 입시 경쟁에 의해서 시험에 나올 법한 지식들만 골라서 가르치는 강의식 수업이 되어버리는 것이 고등학교 수업의 현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 7차 고등학교

2002.

『문학』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특히 고등학교 『문학』교과서는 수필 제재가 출판사별로 다양하게 실려 있어서 협동학습을 구현할 제재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제 7차 고등학교『문학』교과서는 출판사별로 모두 18종의 교과서가 있다. 여기에서는 문학 교육으로서 수필 교육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18종의 교과서에 실린 수필 작품 중에서도 수필 문학 작품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교과서의 본문과 본문 외에 학습활동 등으로 수록된 작품은 모두 45편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교과서의 본문에 실린 현대수필을 연구 대상으로 제한한다.

『문학』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를 살펴보면 크게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으로 나누어진다. 대단원에서는 전체 학습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대단원 학습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다. 중단원에서는 대단원의 학습 목표와 연계성 속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흥미와 동기를 유발한다. 소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작품을 살펴보고 학습활동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확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 출판사에 따라서 그 명칭이 조금 다르나 보충, 심화 학습이나 단원의 마무리 활동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단원의 주요 구성 부분들 중에서 소단원으로 수록된 제재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학습활동이나 보충, 심화학습, 단원의 마무리 활동에서 주어지는 수필 제재들은 학습한 소단원과 관련되어서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활동들을 하기 위한 제재로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내용 학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고등학교『문학』교과서에 실린 수필의 전체적인 양상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구체적인 작품을 선정하여 협동학습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작품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문학』교과서의 내용은 제 7차 국어 교과목의 문학 영역[15]과 밀접하게 연관을 지어서 구성된다. 『문학』교과서는 상권과 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학의 본질과 문학의 수용과 창작의 영역은 상권에서 다루고 있고 문학과 문화 문학의 가치와 태도 영역은 하권에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필 교육에 있어서 수필을 그저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에까지 나아가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과 친구들의 작품을 서로 읽어 보고 평가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 목적이 있다.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영역에는 문학의 창작 원리를 배우고 작품을 감상한 후에 수용자의 처지에서 창조적 재구성을 통해 창작활동에 이르는 네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문학』교과서 상권에서 '문학의 수용과 창작'에 해당하는 수필 제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15)

영역	내용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나) 문학의 기능
	(다) 문학의 갈래
	(라) 문학의 가치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나) 문학의 수용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 문학의 창작
(3) 문학과 문화	(가) 문학 문화의 특성
	(나) 한국 문학이 특질과 흐름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라) 문학의 인접 인접영역
(4) 문학의 가치와 태도	(가) 문학의 가치 인식
	(나) 문학 활동에서 능동적 참여
	(다) 문학에 대한 태도

Ⅱ. 협동학습과 수필 교육

1. 협동학습의 특성과 모형

1) 협동학습의 의미

협동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의 사람 또는 둘 이상의 단체가 서로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교육학 사전에서는 협동을 "공유된 목표에 대한 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행동", 또는 개인과 다른 사람의 유기적인 결함을 촉진 하고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사회적 목표에 도달시키는 사회적 행동 "이라 정의한다. [16] 즉, 협동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는 작은 의미에서부터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의미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협동학습은 자본주의 시대에 도입한 경쟁적인 학습구조와 개별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 경쟁의 시대에 학생들에게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경쟁적 수업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 구조는 학생들에게 승자와 패자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만을 가르쳐 주었고, 대다수의 패자를 생산하게 되는 한계점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그 대안점으로 개별학습을 도입하였는데,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주었지만 사회성이 결여된 개인주의의 모습을 길러냈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학생들 대부분은 주어진 과제를 혼자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학생들의 생각이나 교사의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협동학습 구조는 경쟁학습 구조와 개별학습 구조가 가지고 있는 정의적인

16) 이동원,『인간교육과 협동학습』, 성화사, 1995, pp.67-70.

그리고 인지적인 약점들을 동시에 제거하고 아동의 지적 발달의 연구에서 밝혀 낸 발달 심리와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관한 사회 심리학의 연구 업적에 기초하여 1940년대 도이치(Deutch)가 새롭게 형성시킨 이론이다. 그 후 20세기 초반 듀이(Dewey)와 파커(Parker)등에 의해서 협동 학습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강조되었다. 협동학습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였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의 드브리스(Devries)와 에드워드(Edward)가 체계적으로 협동 학습의 실험 연구를 시작하였고, 존슨(Johnson)과 존슨(Johnson), 슬라빈(Slavin) 등에 의하여 협동 학습 연구가 크게 전개되었다.[17]

슬라빈(Slavin)에 의하면 협동학습이란 학습의 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 목표를 향하여 소집단 나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방법으로 보았고, 코헨(Cohen)은 협동학습을 모든 학습자가 명확하게 할당된 공동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소집단에서 함께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변영계(1993)는 "구성원들이 주어진 학습과제나 학습목표를 소집단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여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의 하였고, 손병노(1996)는 협동학습을 "소규모로 구성된 학습 집단이 구성원 간의 협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학습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학습 효과를 얻게 하는 수업전략"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협동 학습이란 학급 안에서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나누고, 학습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수업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집단 내에서 학생들은 긍정정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더 높은 수준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21세기를 앞둔 현재에 우리는 경제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

17) 정문성, 『협동 학습의 이해와 실천』, 교육 과학사, 2002, pp.19-20.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분야는 그 확산 속도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매일 생성되고 변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많은 정보들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일이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정보의 양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학교의 변화를 요구 한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안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앞으로의 사회 모습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동적인 활동이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인데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이므로 이러한 기술들을 학교생활에서 익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첫째, 사회화 훈련 과정의 변화이다. 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 없이 자라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부재한 공백의 시간동안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회화를 익혀 왔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채널들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항상 켜져 있는 텔레비전 앞에서 가족들은 대화가 단절되어 가고 가족 간의 유대감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사회화의 공백은 인간관계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소외감을 불러 일으켜 높은 자살율의 결과까지 초래하는 현상을 보인다.

학교는 함께 생활하고 배우는 사회화 훈련의 장소이다. 교실 안에서 많은 또래 집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회성이 길러지고 발달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과정에서의 협동 학습은 개인적인 학습보다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이끌어낼 수 있게 한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둘째, 경제 상황의 변화이다. 경제 상황은 직업이 더 전문화 되어가고 정보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의 양을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 되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사회의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 혼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동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도 익혀야 되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의 하나로 학생들과의 협동학습을 통해 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습득 하게 된다.

셋째, 인구분포의 변화이다. 사회는 점점 도시화 되어가고, 인종은 더욱 다양해져 가고 있다. 과거 농촌 사회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던 풍토는 도시화가 되면서 이웃과의 단절로 인해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나라를 구별하지 않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사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구별 짓고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학교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안에서 다른 인종과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실정은 아니다. 외국인 학생은 반을 따로 분반하여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계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동학습은 다른 인종의 학생들을 이해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로 대화할 기회가 많아지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인종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들이 우리와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

게 될 것이다.

현재의 학교 교육은 교실 안에서 개인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 간에 참여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가정에서 소외되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사회화를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 협동 학습은 경쟁과 협력을 모두 경험할 수 있고,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협동하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2) 협동학습의 특성과 모형

우리가 쉽게 살펴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소집단학습은 협동학습의 집단과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은 소집단 안에서 중심적인 한명의 지도자를 토대로 하여 일부 적극적인 학생들에 의하여 과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참여도가 적은 학생도 노력의 여하에 관계없이 집단 안에서의 같은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과제의 완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서로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하지 않으며 자신의 맡은 과제만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과제를 완성해나가는 동안에는 교사의 개입이나 관찰이 거의 없어서 절적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 볼 협동학습은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과는 다른 의미 있는 특징을 지닌다.

협동학습 모형들은 그 목적에 따라 각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18)]

첫째, 수업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각 학습자는 목표 인식도가 높다. 각 학습자는 자신이 활동해서 달성해야 할 수업 목표를 제시받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활동을 한다.

둘째, 학습자들 간에는 긍정적 상호의존성(positive interdependence)이 있다. 협동학습은 구조적으로 아동들끼리 서로 도와주어야 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긍정적으로 의존한다.

셋째, 대면적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이 있다. 협동학습에는 30cm 목소리를 강조한다. 즉 30cm의 거리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말하고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소집단 구성원 사이에 물리적으로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공동 목표의 성취를 위해 밀접한 상호작용을 유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개별적 책무성(individual accountability)이 있다. 협동학습에서 모둠의 개개인은 다른 구성원에 대해 개인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이 얻은 점수를 모둠점수에 반영하는 방식, 학습과제를 분업화하는 방식, 학습 자료를 별도로 분배하는 방식 등이 주로 사용된다.

다섯째, 모둠 목표가 있다. 협동학습에서는 개인의 목표달성이 각 모둠의 공동 목표 달성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구성원들이 모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친구들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려 하는 등 활발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여섯째, 이질적인 모둠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친구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모둠을 이루는 구성원의 질이 다양해야 한다. 인지적 능력의 차이, 성별의 차이,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많을수록 다양한 관점,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 등 상호작용이 극대화되며 이는 인지적으로나 정의적으로 아동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조건이 된다.

---

18) Slavin, 1989; Stahl, 1994; Kagan, 1994, 정문성·김동일, 1998; 정문성(2002)에서 재인용.

일곱째, 모둠 과정을 매우 중시한다. 한 수업이 끝나고, 하루의 일과가 끝났거나 며칠에 걸친 한 과제가 끝났을 때 반드시 모둠들은 자신들이 활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은 아동들이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발전시키고, 미래에 보다 효율적인 모둠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여덟째, 학습 시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정해진 수업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학습 시간을 부여한다.

아홉째, 성공의 기회가 균등(equal opportunities for success)하다. 모둠 개인의 기본적 능력에 관계없이 구성원 누구나 모둠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열째, 모둠의 단합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모둠 경쟁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모둠 간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구성원들의 학습 동기를 촉진시키며 모둠 내 협동을 유도한다.

열한째, 과제의 세분화이다. 모둠 내의 각 구성원들이 과제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모든 아동들이 협동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열둘째, 동시다발적 상호작용(simultaneous interaction)이다. 즉 협동 학습은 여러 모둠들이 동시에 자신의 모둠 안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상호작용의 양이 확대된다.

이상의 특징들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개인의 목표는 공동의 목표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개인의 목표 달성 여부에 모둠 구성원들의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별적인 책임감과 동시에 공동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협력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둠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이고 그 활동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게 된다. 모둠 구성원은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의 집합이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 할 수 있고, 자신이 말한 의견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협동학습의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주요한 협동 학습 연구 중심지에서 개발된 7가지의 유형이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첫째, 슬라빈(Slavin), 매든(Madden), 드브리tm(Devries) 등이 개발한 모둠 성취 분담 모형(STAD: Student Team-Achievement Division), 모둠 게임 토너먼트 모형(TGT: Team Games Tournament), 모둠 보조 개별 학습 모형(TAT: Team Assisted Individualization), 읽기 쓰기 통합 모형(CIRC: Cooperative integrated Reading and Composition) 등이 있고, 둘째, 미네소타 대학의 존슨(Johnson)등이 개발한 함께 학습하기 모형(LT: Learning Together), 셋째, 캘리포니아 대학의 아론슨(Aronson)등이 개발한 직소(Jigsaw)모형, 넷째 텔아비브 대학의 샤란(Sharan)과 라자로비츠(Lazarowitz)등이 개발한 집단 탐구 모형(GI: Group Investigation) 등이 있다.

정문성은 여러 협동학습 모형의 공통된 특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과제 중심 협동학습, 보상 중심 협동학습, 교과 중심 협동학습, 구조 중심 협동 학습, 기타 협동학습으로 구분하였다.

표 1 > 협동학습 모형의 분류

유형분류	수업모형
과제 중심 협동학습	과제 분담 학습 모형(Jigsaw, JigsawⅡ, JigsawⅢ), 집단 탐구 모형(Croup Investigation),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Co-op Co-op)등
보상 중심 협동학습	모둠 성취 분담 모형(STAD: Student Team-Achievement Division), 모둠 게임 토너먼트 모형(TGT: Team Games Tournament)
교과 중심 협동학습	모둠 보조 개별 학습 모형: 수학(TAT: Team Assisted Individualization), 읽기 쓰기 통합 모형: 국어(CIRC: Cooperative integrated Reading and Composition),

	일화를 활용한 의사 결정 모형: 사회
구조 중심 협동학습	암기 숙달, 사고력 신장, 정보교환 의사소통 기술, 과제 전문화 설계
기타 협동학습	함께 학습하기 모형(LT: Learning Together), 찬반 논쟁 협동 학습 모형(PRO-CON), 시뮬레이션 협동 학습 모형, 온라인 협동 학습 모형, 짝 점검 모형(Dyads)

협동학습 모형은 여러 과목들의 특징에 따라서 그 수업 모형들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어과 협동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그 몇 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중에서도 교과 모형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적용, 검증과정을 거쳐 그 절차와 보상 구조가 정착된 협동학습의 유형으로 국어과 협동학습에 적용될 수 있는 과제분담 학습 모형(Jigsaw, JigsawⅡ, JigsawⅢ), 모둠 게임 토너먼트 모형TGT: Team Games Tournament), 읽기 쓰기 통합 모형(CIRC: Cooperative integrated Reading and Composition), 찬반 논쟁 협동 학습 모형(PRO-CON)에 대해 살펴보겠다.[19]

가) 과제 분담 학습 모형(Jigsaw, JigsawⅡ, JigsawⅢ)

과제 분담 학습 모형을 Jigsaw라고 하는 것은 모둠이 전문가 모둠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원래 모둠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조각그림 끼어 맞추기 게임(Jigsaw Puzzle)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모형은 다섯 명에서 여섯 명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하고, 학습할 내용을 구성원의 수에 맞도록 나

19) 협동학습 모형에 관한 내용은 신헌재(2003), 정문성(2002), 전성연(2007)의 책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눈 후 한 부분씩 맡도록 한다. 협동 학습을 할 때에는 집단의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모둠 내의 다른 동료의 도움 없이는 학습이 불가능 하게 된다. 모든 학습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동해야 하며 모둠 구성원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협동 학습을 마친 후에 개인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모둠에 대한 평가가 없다. 학습한 결과에 대한 모둠 보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동료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점들로 인하여 그 효과가 일관성 있게 입증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한 JigsawⅡ, JigsawⅢ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그소 모형의 수업절차는 5-6명으로 구성된 원래 모둠이 있고, 모둠 구성원은 각자 소주제가 적힌 전문가 학습지를 받아서 그 소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된다. 각 모둠에서 동일한 주제를 맡은 전문가끼리 따로 전문가 모둠을 구성해 함께 활동을 한다. 전문가활동이 끝난 후에 모둠에서 이해한 내용을 전달하여 개인평가와 집단평가를 하는 수업모형이다.

나) 모둠 게임 토너먼트 모형(TGT: Team Games Tournament)

이 모형은 지루할 수 있는 학습을 게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모둠안에서 경쟁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둠의 1번이 다른 모둠의 1번과 게임을 하기 때문에 각자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좋은 성적을 얻은 학습자는 다음 수업에서 더 높은 수준의 경쟁자들과 모여서 게임을 할 수 있고 낮은 성적을 얻은 학습자는 낮은 수준의 경쟁자들과 게임을 하게 된다. 이 모형은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게임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수업시간 내내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은 협동을 하는 학습의 시간이 적은 단점이 있다.

모둠 게인 토너먼트 모형의 수업절차는 4-5명으로 구성된 모둠안에서 교사가 만들어 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교사로부터 정답지를 얻어 결과를 확인하는 모둠활동을 한다. 후에 학생들은 교사의 게임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너먼트 게임을 하고 각자의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에 따라서 우수한 팀에게 보상을 하고 동기유발을 일으키는 수업 모형이다.

다) 읽기 쓰기 통합 모형(CIRC: Cooperative integrated Reading and Composition)

협동학습의 모형들은 모든 교과목에 적용할 수 있지만, Slavin은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모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언어 교육을 위한 협동학습 모형을 만들었다. 그는 교육과정과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협동학습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이 모형은 소리 내어 읽기를 통해서 독해기술을 익히고, 쓰기 과정에 다른 학생들이 서로 참여하여 학생들은 서로 자신의 짝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주고 함께 수정해 나간다.

라) 찬반 논쟁 협동 학습 모형(PRO-CON)

사회를 살아가는데 갈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갈등은 사회를 위협하기도 하고 사회발전을 가져 오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이 표출되어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대립될 때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말했을 때 반대자의 반박에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모형은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관점과 결론을 가진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확산적인 사고가 자극될 수 있도록 한다. 찬반 논쟁 협동 학습 모형의 수업 절차는 논쟁할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한다. 구성원들은 다양한 의견들로 얻어진 각 대안들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한 뒤 평가를 한다.

2. 수필 교육과 협동학습

1) 수필 교육의 의의

문학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문학에는 인간의 삶이 담겨져 있고, 희로애락이 담겨 있으며, 가치와 꿈이 담겨 있다. 문학은 삶의 자취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기도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무한대의 상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래서 문학은 재미있는 것이며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문학 작품에 담긴 삶의 모습과 상상력의 세계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20]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깨달음과 의미를 알게 되고, 작가가 작품에 펼쳐 놓은 상상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꿈을 키우고 깨달음 을 얻는다. 이러한 문학의 특징들은 수필에서도 드러난다.

수필은 시나 소설 등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형식의 제약이 적은 편이고, 글을 쓸 수 있는 소재가 매우 다양하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쓰는 작가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장르에 비해서 독자들은 수필을 쉽게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문학 장르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하지만 누구나 수필을 쓸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문학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자기 체험을 썼다고 해서 수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쓰고자 하는 소재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개성적인 자신의 안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

20) 김대행,『문학교육 틀짜기』, 역락, 2000. p.204.

이렇듯 수필은 학습자에게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과 작가의 체험을 통해 얻은 많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그들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이끄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구인환은 수필의 장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필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21]

첫째, 자기성찰(自己省察)과 표출(表出)의 체험이 수필교육의 일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수필은 다른 장르와 달리 자기성찰과 표출이 자유로운 장르이다. 수필에 나오는 화자는 대리체험적으로 허구화된 것이 아니고 작가 자신이다. 다른 사람의 체험을 쓴다고 하더라도 작가가 자신의 사고 영역에서 반추하고 재의미화한 것을 표현하게 된다. 물론 그 표현방식은 기성의 언어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지만 체험을 자기화한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수필의 교육은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 문학교육 일반의 특징이 자기교육적(自己敎育的)인 성격을 짙게 드러내는 것처럼, 수필의 경우는 이 특징이 더욱 극명히 드러나게 된다. 자신의 사색과 감수성을 가식 없이 표현하는 것이 수필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물에 대한 감수성(感受性)과 비판의식(批判意識)을 목표화할 수 있다. 이는 수필의 산문성에서 연유하는 목표이다. 기존의 언어를 가지고 사물을 분해하고 그 의미를 반추하는 가운데 미결정적인 상태의 사고를 전개하는 것이 수필이다. 이런 속에서 대상의 의미를 분석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수필은 대상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장르이다. 이는 수필을 통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인식적인 상상력, 나아가 조응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는 초월적인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에 유리한 장르이다. 거기에 비해 수필은 현실의 파악과 비판에 그 기능이 집중되는 것이다. 각종 평론들이 수필의 넓은 영역에 포함되는

21)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pp.286-289.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셋째, 수필을 통하여 단편적인 체험의 종합화를 기할 수 있다.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구성적인 개념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며, 글을 이해하는 과정 또한 글쓰기의 구성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수필을 읽는 것은 분편화된 독자의 체험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수필교육만의 고유한 목표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수필의 전달통로가 직접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장르에서 구하기 어려운 수필교육의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필교육을 통하여 기록(記錄)의 교육성(敎育性)을 이해할 수 있다. 일상의 경험에서 기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기록은 사물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두 요소를 함께 포괄한다. 아무리 형식적인 제약이 없는 글이라고 해도, 글을 쓴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구조가 드러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 대상의 구조를 이해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일정한 의미단위로 구분하는 데서 가능해진다. 설명(設明)과 서사(敍事)에서 글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구조의 개념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서사의 경우 플롯이라는 것은 사고의 유형과 단위를 함께 드러내는 개념이다. 또한 글을 쓴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는 기록의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기록의 의욕을 촉발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의 속성을 바로 보려는 것이 곧 대상에 대한 평가이다. 인간표현행위의 근원으로서 기록은 가치를 지니는데, 이는 수필교육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목표가 되기도 한다.

다섯째, 수필교육은 창작지도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는 수필이 기록의 원초적인 형태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보통 교육에서 창작의 지도는 시인이나 소설가, 수필가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교육의 초점이 놓이

지는 않는다. 다만 감상이 적극화되고 표현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내적 동기를 교육적으로 수용해 주자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해당 단계의 교육의 과정에서 전인적 교양 수준의 문학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하다. 그것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창작 수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해당 학생 개인의 능력과 결단에 달린 것이다. 수필은 형식적인 제약성이 크지 않다는 점, 자기 체험의 표출이라는 점, 문학과 비문학의 두 영역을 넘나들 수 있다는 장르상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접근하기가 비교적 쉬운 영역이다.

끝으로, 수필교육은 문화전승의 직접적인 매재가 될 수 있다. 고전수필의 경우 선인들의 진솔한 생활체험이 드러나 있는 것이므로 문화적인 내용을 수용하기가 용이함은 물론, 문학의 텍스트상호성을 높이는 데에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수필을 중심으로 다른 장르와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필 교육은 자신의 체험이나 사물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을 구조화하여 글쓰기를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성찰과 사물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르고 나아가 문화적인 욕구까지 충족시키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수필 교육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의 삶을 통해서 학습자의 삶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 작가는 수필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느낀 삶에 대한 가치관과 자신의 인생관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글을 읽고 작가의 삶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으로 나아감으로써 성장기의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창작활동에 쉽게 다가감으로써 문학작품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흔히 학생들은 문학 작품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작가만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글을 쓰는 활동을 매우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수필 교육은 학습자에게 소재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게 함으로써, 자신도 쉽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글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면 문학작품에 대해 친숙해지고 흥미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소설은 복잡한 사건 구성이나 인물들의 관계가 전개되고 그 주제가 쉽게 드러나 있지 않다. 시의 경우도 상징적인 언어들과 추상적인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수필은 작가의 개성이 비교적 작품에 쉽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작가의 의도나 생각을 스스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작품의 분석이 수필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자신의 체험에 대한 글쓰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작품의 감상에서 창작까지의 단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2) 협동학습과 수필 교육

과거의 학습은 그저 텍스트를 파악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읽고 쓰는 능력이 개인의 의미구성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점점 학습자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개인의 의미구성은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학습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개인적 창조와 사회적 관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과 언어 발달에 대한 인지적,

사회적 관점을 모두 아우른다.[22]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을 보면 “작품의 수용활동은 강의, 강독에 치우치지 말고, 발표, 토의, 토론, 협동하습, 현장 학습, 감상문과 비평문 쓰기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도한다.”고 설명한다. 강의식수업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협동학습과 프로젝트법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학습이 수필교육에 주는 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이해능력을 신장시켜 준다. 수필교육의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작품을 읽고 난 후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이나 작가의 생각을 구성원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고민한다. 자신이 분석한 작품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의견의 틀린 점을 인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공동의 이해와 생각에 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의 이해능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다.

둘째, 작품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수필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각기 다른 느낌이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는 개별학습을 통해서는 자신의 반응만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사가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직접 교수법을 사용할 경우 작품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고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협동학습은 학습자 개개인의 작품에 대한 반응을 공유할 수 있게 하므로, 개개인의 다양한 의식과 체험을 경험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기르고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22) 신헌재・이주섭「국어교육과 협동학습」, 한국초등국어교육 제 15집, 1999. p.28.

셋째, 더 높은 수준의 창작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수필교육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글 내용의 이해를 넘어서서 직접 창작 활동을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내면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학습활동에서 학습자는 창작활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쓰고, 교사에게 평가를 받거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하지만 협동학습을 통한 수필교육에서는 자신이 쓴 글을 모둠의 학생들과 같이 읽어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글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글을 읽어 봄으로써 자신의 글쓰기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수 있다. 피드백이 이루어 질 때에는 적절한 단어사용이나 문장의 호응에 관한 의견도 듣게 되므로 어휘력이나 문장력의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넷째,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협동학습에서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표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태도도 중요하다. 학생들은 서로의 반응을 존중하면서 비판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배운다. 협동을 통한 수필교육은 학생들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고, 학습자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Ⅲ. 제 7차 『문학』 교과서의 수필 수록 양상

1. 수필 수록의 양상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시켜 학교 수업 현장에 제공되는 교수·학습의 중심 자료이면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목표 중심의 교재'[23] 이다.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영역에서 수필 제재가 지니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24]

가. 학습자의 가치 성찰과 표출의 체험기회를 갖고, 창작 능력을 기르기에 적절한 제재이다.
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작품의 해석과 비평 활동을 통해 사물에 대한 감수성과 비판의식을 기르기에 적합하다.
다.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해 다양한 인간의 삶의 양식을 체험하며, 전인적인 인간 형성을 위한 가치의 내면화를 꾀하기 알맞은 제재이다.
라. 학생들에게 심미적 가치, 문화적 가치, 윤리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기를 수 있다.
마. 교수-학습 과정에서 수필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문학적 목적으로 국어의 표현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에 알맞은 제재이다.

이렇듯 수필 제재는 자기 성찰을 통해 인격형성을 이루게 하고 국어의 표현 능력까지도 기를 수 있는 제재이다. 특히 교과서에 실린 수필 제재는 이러한 수필 제재의 특성과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선정된

23) 노명완 외,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p.12.
24) 제 7차 교육과정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의 탐색,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2001

제재이므로 본 장에서는 교과서의 수필 제재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7차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수필의 수록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18종 문학 교과서의 저자 및 출판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 제 7차 고등학교『문학』교과서 현황

번호	편저자	출판사
1	김윤식, 김종철, 맹용제, 진중섭, 허익	(주) 도서출판 디딤돌
2	홍신선, 박종성, 김강태	(주) 천재교육
3	박경신, 김성수, 이용수, 안학서	(주) 금성 출판사
4	우한용, 박인기, 정병헌, 최병우, 이대욱, 경종록	(주) 두산
5	한철우, 김명순, 김충식, 남상기, 박영민, 박진용, 염성엽, 오택환	(주)문원각
6	한계전, 신범순, 박윤우, 김송환, 노진환	(주)블랙박스
7	김창원, 권오현, 신재홍, 장동찬	민중서림
8	조남현, 정성배, 조세형, 장수익, 배성완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9	김병국, 윤여탁, 김남수, 종용기, 최영환	(주)한국교육미디어
10	강황구, 권형중, 김대용, 박정곤, 이준	상문연구사
11	구인환, 구자송, 정충권, 임경순, 하희정, 황동원	(주)교학사(구)
12	김대행, 김중신, 김동환	(주)교학사(김)
13	권영민	(주)지학사(권)
14	박갑수, 김진영, 이승원, 이종덕, 박기호	(주)지학사(박)
15	오세영, 최래옥, 유학영, 남궁환, 남기혁, 류순태, 송규각, 정일형	(주)대한교과서
16	최웅, 유태수, 김용구, 이대범	청문각
17	김상태, 송연호, 김혜니, 김유중, 황도경, 조혜란	도서출판 태성
18	박호영, 한승주	형설출판사

다음은 제 7차 문학교과서 18종에 수록된 수필 제재의 수록 현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문 외에 학습활동으로 수록된 작품은 제외하고 교과서 본문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활동에 제시된 수필 제재는 작품에 대한 내용 학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표 3 > 제 7차 고등학교『문학』교과서 수필 수록 현황

교과명[25] / 수필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빈도
1. 그믐달/나도향						◎											○		2
2. 낭객의 신년 만필/신채호				○					○										2
3. 헐려 짓는 광화문/설의식				○															1
4. 청춘 예찬/민태원			○			◎													2
5. 명명 철학/김진섭				◎						◎									2
6. 백설부/김진섭		○											○			○		◎	4
7. 권태/이상								○											1
8. 동해/백석						◎													1
9. 추사 글씨/김용준				◎															1
10. 특급품/김소운												○							1
11. 가난한 날의 행복/김소운		◎																	1
12. 한여름 밤에/노천명								◎											1
13. 구두/계용묵										◎									1
14. 딸각발이/이희승	◎												◎			○			3
15. 은전 한 닢/피천득			◎																1
16. 수필/피천득		◎							◎							◎	◎		4
17. 지조론/조지훈									○										1
18. 행복의 메타포/안병욱											◎								1
19, 웃음에 대하여/양주동											◎						◎		2
20. 나무/이양하										◎									1
21. 무궁화/이양하	◎																		1
22. 폭포와 분수/이어령														◎					1
23. 먼 곳에의 그리움/전혜린	○						○		◎										3
24. 무소유/법정	◎		◎		○						◎	◎				◎		○	7
25. 보리/한흑구			◎																1

26. 부끄러움/윤오영	◎			◎														2
27. 달밤/윤오영										○		◎						2
28. 방망이 깎던 노인/윤오영			◎															1
29. 해학송/최태호											○							1
30,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김태길								◎										1
31. 돌층계/유경환					◎													1
32. 드높은 삶을 지향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십시오/신영복										◎								1
33. 욕설의 리얼리즘/신영복		○																1
34. 자장면/정진권								○										1
35. 쇠붙이와 강철 시대의 봄을 맞으면서/유안진				○														1
36.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유홍준		○																1
37. 아리랑과 정선/김병종						○												1

(◎표는 문학 '상'에 실린 작품이고, ○는 문학 '하'에 실린 작품이다.)

제 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본문과 학습활동 등에 수록된 작품은 총 45편으로 이 중 학습활동 등에 실린 현진건의 '불국사 기행',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면서', 이태준의 '물', 김소운의 '피딴 문답', 피천득의 '플루트 연주자', 정비석의 '산정 무한', 유달영의 '슬픔에 관하여', 서정주의 '석남꽃'을 제외하면 본문에 실린 작품의 수는 총 37편이다.

출판사에 따라서 교과서에 실린 수필 제재의 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3-4편정도의 작품이 실렸으며 적게는 한편의 제재도 실리지 않은 교과서도 있

25) 교과명은 표1 제 7차 문학 교과서 현황의 순번을 따른다.

고 많게는 여섯 작품이 실린 출판사도 있다.

본문으로 수록된 수필 제제의 작가를 살펴보면 김소운과 윤오영 작가의 작품이 각각 3편씩 실려 가장 많은 작품이 실렸고, 그 밖에 김진섭과 이양하, 신영복의 작품이 2편씩 실렸으며 나머지 작품들은 한 작가에 한 작품씩 실려 있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작품은 상권과 하권에 총 7작품이 실린 '무소유'이고, 그 다음으로 4작품씩 실린 '수필'과 '백설부'이다. '무소유'라는 작품은 집착과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설파한 법정스님의 작품이다. 평생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 구도의 길을 걷는 종교인의 세상을 보는 혜안과 깨우침이 맑은 언어로 표현되었고, 소유욕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작품은 특히 수필집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도서로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작품이다. 특히 법정스님은 삶에서도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태도를 본받고자 그를 존경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단연 눈에 띄게 작품이 많이 실려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수필'은 피천득 작가의 작품으로 수필의 특징과 가치를 함축적 비유로써 작가가 생각하는 수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수필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많이 활동되는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백설부'는 한겨울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떠올린 생각과 느낌을 기록한 것으로 세상의 비속함과 눈 덮인 순백의 세상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작가 특유의 만연체 문장과 어려운 한자어를 구사하여 장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작품은 1939년에 발표되어 눈에 대한 작가의 자유로운 사색과 삶에 대한 통찰이 독특한 개성으로 형상화되어 수필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수필의 특성과 의미

1) 제재와 주제

작품을 제재별로 나누어 보자면 크게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관찰, 생활 속에서 보고 들은 경험이나 체험, 인생이나 현상에 대한 생각으로 나눌 수 있다.

표 4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수필의 제재

제재	작품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관찰	그믐달, 동해, 특급품, 한여름 밤에, 딸각발이, 수필, 나무, 무궁화, 폭포와 분수, 보리, 해학송, 돌층계,
생활 속에서 보고 들은 경험이나 체험	권태, 불국사 기행, 추사 글씨, 구두, 은전 한 닢, 부끄러움, 달밤, 방망이 깎던 노인, 석남꽃, 욕설의 리얼리즘, 자장면,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아리랑과 정선
인생이나 현상에 대한 생각	낭객의 신년 만필, 헐려 짓는 광화문, 청춘예찬, 백설부, 가난한 날의 행복, 지조론, 행복의 메타포, 웃음에 대하여, 먼 곳에의 그리움, 무소유,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 드높은 삶을 지향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십시오, 쇠붙이와 강철 시대의 봄을 맞으면서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관찰에 대한 수필은 12편으로 대상에 대한 사랑을 다룬 ‘그믐달’이나 ‘동해’와 같은 작품이나 보리의 강한 생명력을 예찬하는 ‘보리’, 돌층계를 보고 인생의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에 대해서 쓴 ‘돌층계’같은 작품이 있다. 생활 속에서 보고 들은 경험이나 체험을 주제로 한 수필은 13편으로, 기행문 형식에 속하는 작품들이 포함 되고, 방망이 깎는 노인과의 만남으로 장인 정신에 대해 쓴 ‘방망이 깎던 노인’, 어릴적 만난 소녀의 부끄러움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 쓴 ‘부끄러

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생이나 현상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한 수필은 13편으로 일제 강점기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강제로 헐려서 옮겨지는 상황을 비판한 ‘헐려 짓는 광화문’, 수험생에게 일하는 삶의 소중함과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쓴 ‘드높은 삶을 지향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십시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수필은 제재가 비교적 고루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제재는 중심 소재가 되기 때문에 제재가 다양할수록 학습자에게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린 수필 제재들은 다소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제재들이 많다. 현재 학생들이 관심 갖고 있고, 학생들의 삶속에서 겪는 체험들이 담긴 작품들이 수록 된다면 자신의 삶과 비교해 봄으로써 자기 성찰을 이루는데 더 많은 교육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수필을 구체적으로 작품의 갈래와 성격, 주제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26]

표 5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수필의 갈래, 성격, 주제

작품명	갈래	성격	주제
1. 그믐달/나도향	경수필	묘사적, 낭만적	그믐달에 대한 사랑
2. 낭객의 신년 만필/ 신채호	중수필	논설적	조선 신문예 운동의 폐해
3. 헐려 짓는 광화문/ 설의식	중수필	민족적, 저항적	광화문의 철거에 대한 분노와 저항
4. 청춘 예찬/민태원	중수필	웅변적, 예찬적	청춘에 대한 찬미
5. 명명 철학/김진섭	중수필	지적, 논리적	이름의 위력과 중요성
6. 백설부/김진섭	중수필	감각적,	현실 세계와 대비된 순수함의 추구

26) 문학(18종 자습서), 디딤돌, 2003. 참조

		사색적, 예찬적	
7. 권태/이상	경수필	초현실주의적	환경의 단조로움과 일상적인 생활의 연속 속에서 느끼는 권태로움
8. 동해/백석	경수필 (기행문)	감각적, 예찬적	동해에 대한 사랑
9. 추사 글씨/김용준	경수필	비판적, 교훈적	속물적인 자세에 대한 비판
10. 특급품/김소운	경수필	유추적, 교훈적	시련을 극복해 낸 인생의 가치
11.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운	경수필	담화적, 교훈적, 회고적	가난 속에서도 빛나는 사랑
12. 한여름 밤에/노천명	경수필	회상적, 감각적, 낭만적	시골 여름 밤의 정겨움
13. 구두/계용묵	경수필	극적, 서사적, 신변잡기적	인간관계가 왜곡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14. 딸각발이/이희승	중수필	복고적, 교훈적	딸각발이 정신의 계승
15. 은전 한 닢/피천득	경수필	회상적, 체험적	인간의 소박한 소유욕과 거기서 느낀 감회
16. 수필/피천득	경수필	주관적, 주정적, 비유적, 설득적	수필의 본질과 특성
17. 지조론/조지훈	중수필	설득적, 교훈적, 시사적	변절에 대한 경계와 지조의 중요성
18. 행복의 메타포/안병욱	중수필	교훈적, 사색적	진정한 의미의 행복의 조건
19, 웃음에 대하여/양주동	경수필	해학적	가식적 웃음에 대한 경계 (웃음의 의미와 가치)
20. 나무/이양하	경수필	주지적, 논리적,	나무가 지닌 덕

		사색적, 예찬적, 교훈적	
21. 무궁화/이양하	경수필	사색적, 체험적, 설명적	무궁화는 국화로서의 자격이 충분함
22. 폭포와 분수/이어령	경수필	분석적, 설명적 주관적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
23. 먼 곳에의 그리움/ 전혜린	경수필	낭만적, 사변적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동경
24. 무소유/법정	경수필	사색적, 체험적, 교훈적, 형이상학적	진정한 자유와 무소유의 의미
25. 보리/한흑구	경수필	예찬적, 교훈적	보리의 강한 생명력 예찬
26. 부끄러움/윤오영	경수필	신변잡기적, 정감적, 서정적	일화적 경험을 한국적 정서로 표현
27. 달밤/윤오영	경수필	회고적, 주정적, 주관적, 담화적	낙향하였을 때 겪은 어느 노인과의 짧은 만남
28. 방망이 깎던 노인/ 윤오영	경수필	교훈적	장인 정신의 예찬
29. 해학송/최태호	중수필	분석적, 해설적	한국 해학의 멋
30,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김태길	경수필	복고적, 교훈적, 예화적	멋의 진정한 의미
31. 돌층계/유경환	경수필	주관적, 비유적, 교훈적	인생의 단계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
32. 드높은 삶을 지향하는	경수필	교훈적	수험생에 대한 격려

진정한 합격자가 되십시오/신영복	(편지글)		
33. 욕설의 리얼리즘/신영복	경수필 (편지글)	사색적, 성찰적	교도소 안에서 사용되는 욕설
34. 자장면/정진권	경수필	정감적, 회고적	훈훈한 인정이 사라져 가는 것에서 느끼는 아쉬움
35. 쇠붙이와 강철 시대의 봄을 맞으면서/유안진	중수필	비유적, 비판적	인간 사회에 자애와 포용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36.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유홍준	경수필 (기행문)	비평적, 서정적, 설명적	문화 유산에 대한 애정
37. 아리랑과 정선/김병종	경수필 (기행문)	정감적	정선 지방을 여행하며 느낀 감회

수필을 크게 개인적인 감정이 중심이 되는 경수필과 보편적인 논리가 중심이 되는 중수필로 나누었을 때 중수필은 10편이 실려 있고, 경수필은 27편이 실려 있어 경수필이 중수필에 비해서 세배에 이르는 작품이 실려 있다. 이는 딱딱한 느낌의 중수필보다는 공감하기 쉬운 경수필이 학습자들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제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서술 형태 및 진술 방식

수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형식상 서술 형태로 구분하면[27] 체험의 내용을 1인칭으로 쓰는 수감・수상(隨感・隨想)형식, 편지체 형식, 기행체 형식, 전기체 형식, 일기체 형식, 논설체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27) 윤모촌, 『수필 문학의 이해』, 미리내, 1989. pp.112-168.

표 6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수필의 서술 형태

서술 형태	작품
체험의 내용을 1인칭으로 쓰는 수감・수상(隨感・隨想)형식	그믐달, 권태, 추사 글씨, 특급품, 가난한 날의 행복, 구두, 은전 한 닢, 웃음에 대하여, 나무, 무궁화, 먼 곳에의 그리움, 무소유, 보리, 부끄러움, 달밤, 멋없는 사람 멋있는 사람, 돌층계, 자장면,
편지체 형식	드높은 삶을 지향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십시오, 욕설의 리얼리즘
기행체 형식	동해,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아리랑과 정선
전기체 형식	딸각발이, 방망이 깎던 노인
논설체 형식	낭객의 신년 만필, 헐려 짓는 광화문, 청춘 예찬, 명명 철학, 백설부, 수필, 지조론, 행복의 메타포, 폭포와 분수, 해학송, 쇠붙이와 강철 시대의 봄을 맞으면서,

수감・수상(隨感・隨想)형식은 부드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히는 경수필(輕隨筆)을 말한다. 직접 체험이나 간접 체험을 느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특별한 형식에 의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형식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형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필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형식이 표면적으로 구분하기에 뚜렷한 작품들을 위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편지 형식은 실용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라 해도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면 수필적인 요소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필이 편지 형식을 빌려오는 이유는 읽는 독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단점은 독자에게 의미 없는 독백으로 그칠 수 가 있다. 편지 형식에 속하는 수필에는 수험생에 대한 격려를 주제로 한 ‘드높은 삶을 지향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십시오’와 교도소 안에서 사용되는 욕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욕설의 리얼리즘’이 있다. 기행체 형식은 여행을 했을 때의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한 체험을 쓴 글이다. 기행문의 요소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동경, 현재의 시간에서 벗

어나는 해방감, 새로운 견문과 사색, 여행지에서 얻어지는 추억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작자에게 신선한 충동을 일으키는 소재가 된다. 기행체 형식의 수필에는 동해에 대한 사랑은 담은 '동해'와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아리랑과 정선'이 여기에 속한다. 전기체 형식은 실재(實在)했던 인물의 일생동안의 행적(行蹟)을 그 시대나 후세 사람이 기록한 것을 말한다. 스스로 자신의 일생을 쓰면 자서전(自敍傳)이 된다. 전기체 형식의 수필은 일반적으로 주인공의 인간상이 특수할 때 소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이 따르지 못하는 행적과 인격적이고 인간적일 때이다. 여기에 속하는 수필에는 딸각발이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 '딸각발이'와 장인정신을 예찬한 '방망이 깍던 노인'이 있다. 일기체 형식은 사적인 기록인 일기가 남에게 공감을 주는 것이 된다면 수필 형식의 글이 될 수 있다. 공감을 준다는 것은 작가의 성찰이 담기고 그것이 독자가 읽기에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작자의 생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형식에 해당하는 작품은 아쉽게도 실려 있지 않았다. 논설체 형식은 수필이 논설문의 성격을 띤다는 것은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생각이 조리 있게 쓰여져야 하고 글 전체의 구성이 논리적이어야 한다. 논설체 형식은 사회 비평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 등이 속하며 소론(小論)・소고(小考)등의 평론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대부분 중수필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수감・수상(隨感・隨想)형식, 논설체 형식에 비해서 편지체 형식 2편, 기행체 형식 3편, 전기체 형식 2편으로 형식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수필쓰기 활동을 할 때에는 물론 경험을 소재로 수필을 쓰는 것이 쉽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수필작품에 대한 이해와 수필쓰기를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좀 더 다양한 작품이 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는 형식적인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수필은 형식상 서술 형태에 따른 갈래 말고도 내용상 진술 방식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진술방식에 따른 갈래로 나누어 볼 때, 수필은 제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필의 종류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여러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인환이 제시한 4종류설에 따라서 서정적 수필, 서사적 수필, 희곡적 수필, 교훈적 수필로 분류한다.[28] 서정적 수필은 자아의 주관적인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이나 자연에서 느낀 감상을 솔직하고 주관적으로 표현하여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개성이 강한 수필이고, 서사적 수필은 인물의 행위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자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며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줄거리를 지니고 있는 수필이다. 희곡적 수필은 서술자의 개입 없이 행동과 대화의 전개만으로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며 사건을 극적으로 전개하여 극적 긴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수필이고, 교훈적 수필은 글쓴이의 체험이나 사색에서 이루어진 지혜를 바탕으로 하여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수필이다. 진술방식에 따라 작품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수필의 진술 방식

진술 방식	작품
서정적 수필	그믐달, 낭객의 신년 만필, 헐려 짓는 광화문, 명명 철학, 청춘 예찬, 백설부, 동해, 한여름 밤에, 수필, 웃음에 대하여, 무궁화, 폭포와 분수, 먼 곳에의 그리움, 보리, 해학송, 욕설의 리얼리즘, 자장면, 쇠붙이와 강철 시대의 봄을 맞으면서
서사적 수필	권태, 은전 한 닢, 방망이 깎던 노인, 부끄러움,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아리랑과 정선
희곡적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 구두, 달밤

28) 구인환, 『한국 현대 수필을 찾아서』, 한샘, 1993. pp.32-33.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는 수필을 진술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서정적 수필, 서사적 수필, 희곡적 수필, 교훈적수필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훈적 수필	추사 글씨, 특급품, 딸각발이, 지조론, 행복의 메타포, 나무, 무소유,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 돌층계, 드높은 삶을 지향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십시오

수필 작품이 진술방식에 따라서 정확히 구분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실에 대해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서사적인 수필이면서 그 속에는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험을 쓴 수필의 대부분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작가의 교훈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정적, 서사적, 희곡적, 교훈적인 갈래 중에서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진술 방식에 따른 구분에서는 서정적인 수필이 18편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이 교훈적 수필이 10편, 서사적 수필이 6편, 희곡적 수필이 3편이었다. 작품의 대부분은 서정적이거나 교훈적인 내용의 수필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정적인 수필은 자아의 주관적인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느낌이나 삶이나 자연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수필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갈래에 비해서 쓰기가 쉽고 가볍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교과서에 많이 실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서사적이거나 희곡적인 수필은 마치 소설 같은 느낌을 주지만 자신의 견해가 뚜렷하게 제시 되어 있는 수필이다. 특히 희곡적인 수필은 극적인 긴장을 주는 특이한 형식의 수필로 서정적인 수필에 비해 3편 밖에 실리지 않아서 좀 더 다양한 갈래의 수필 작품이 실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Ⅳ. 협동학습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1. 교과서에 제시된 지도방안

제 7차 '문학' 과목의 교육과정의 내용은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과 문화 문학의 가치와 태도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영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원리에서는 갈래와 작가, 문화적 배경들을 토대로 작품의 미적 구조를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문학 일반의 원리와 문화적 배경이 작용함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문학작품의 분석효과가 내용과 형식 표현의 유기적인 구조 속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해하고,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작품에 접근하고, 주제를 알기 위해서 주체, 구조, 맥락의 상호작용을 학습한다.

(나) 문학의 수용에서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써 작품을 내용과 형식 표현을 분석하고 감상하며 작품이 지니는 가치를 판단하고,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및 정서와 통합하여 독자적인 의미구조를 형성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에서는 작품을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들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작품에 대한 수용텍스트를 쓰고, 그 결과를 놓고 다른 학생과 토론하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문학 활동의 과정을 내면화함으로써 문학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한다.

(라) 문학의 창작에서는 문학의 기본 갈래인 시, 소설, 희고, 수필 등의

작품을 직접 창작해보고 창작에 필요한 형식과 표현기법을 익히며 창작의 두려움을 없앤다. 그리고 창작한 작품을 서로 평가해 보면서 문학능력을 심화시켜 나간다. 다른 학생의 작품을 감상해 보는 일은 창작에 좋은 자극이 되므로 개인적인 활동 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영역은 문학의 창작 원리를 배우고 작품을 감상한 후에 수용자의 처지에서 창조적 재구성을 통해 창작활동에 이르는 네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수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수필작품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내면화하고 창작에 이르는 활동을 모두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협동학습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모둠의 구성원들과 함께 작품을 해석해보고 작품에서 느낀 감정들을 서로 공유하는데 있고, 수필 쓰기를 한 후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친구들의 작품들을 읽어 보면서 동료로부터 배우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문학의 내용체계와 내용에서 '(2) 문학의 수용과 창작'에 해당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문학의 수용과 창작' 수록 작품

단원	작품(명)
문학의 수용과 창작	1.명명철학/김진섭
	2.백설부/김진섭
	3.추사 글씨/김용준
	4.가난한 날의 행복/김소운
	5.구두/계용묵
	6.딸각발이/이희승
	7.은전 한 닢/피천득
	8.수필/피천득
	9.행복의 메타포/안병욱

	10.웃음에 대하여/양주동
	11.나무/이양하
	12.무궁화/이양하
	13.폭포와 분수/이어령
	14.먼 곳에의 그리움/전혜린
	15.무소유/법정
	16.슬픔에 관하여/유달영
	17.부끄러움/윤오영
	18.방망이 깎던 노인/윤오영
	19.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김태길
	20.돌층계/유경환
	21.드높은 삶을 지향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십시오/신영복

그래서 협동학습을 적용한 작품을 선정하는데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영역에 해당하는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의 교과서 수록 양상

이 작품은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편찬한 『문학』교과서에 실린 작품으로 대단원 Ⅳ. 수필의 수용과 창작, 중단원 2. 수필의 감상과 수용에서 소단원으로 실려 있는 작품이다. 대단원 Ⅳ. 수필의 수용과 창작의 설정 취지는 수필을 더욱 잘 수용하고 수필을 수필답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을 수필 형식으로 표현해 보기도 하면서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자아를 성찰하는 안목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대단원의 학습 목표>

- 수필의 구성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
- 수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필 작품을 감상·수용하고 내면화한다.
- 수용자의 입장에서 수필을 비판적·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수필 작품을 창작하고 서로 평가한다.

중단원 2. 수필의 감상과 수용에서는 실제 수필을 감상해 봄으로써 앞단원에서 학습한 수필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가의 개성과 견해를 탐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표 9 > 대단원 'Ⅳ. 수필의 수용과 창작' 지도 계획

대단원	학습영역		학습목표	시수
Ⅳ. 수필의 수용과 창작	대단원 길잡이/들머리 학습			2
	1. 수필의 이해	(1) 무형식 속의 형식 (2) 성찰과 개성	-수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안다. -수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실제의 작품에 적용한다. -수필을 감상·수용하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수필의 기본 지식을 활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2. 수필의 감상과 수용	(1) 주옹설 (2) 한여름 밤에 (3)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	-생활의 멋과 여유에 공감하며 감상한다. -인간의 삶에 대해 사색하며 가치를 내면화한다.	4
	3. 수필의 창작	(1) 주제 정하기와 구상하기 (2) 실제로 써보기	-수필의 창작 원리를 이해한다.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수필을 창작·발표하고 평가한다. -수필 창작의 경험을 통해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2
	대단원 마무리			1

이러한 중단원의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소단원에 김태길의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실었다. 이 작품은 일상의 체험과 역사적

일화 속에서 멋있는 사람 혹은 멋있는 순간을 추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멋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해 주는 수필이다. 제제의 구성은 어느 버스 운전기사의 멋과 예전 선비들의 멋, 외형의 멋과 진정한 멋, 진정한 멋 추구의 자세에 대하여 크게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급정거 하는 버스 안에서 안내양의 몸을 바로 잡아주고 침묵을 지키는 대법한 태도에서 나오는 멋과 나라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건 용기를 보여준 선비조헌과 이지천의 기생들과의 풍류와 멋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진정한 멋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무형의 멋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진정한 멋은 욕심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작은 웃음을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에 관한 활동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 넓히기와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 작품에 대한 학습활동

생각 넓히기	혼자하기	1. 다음 글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보자. (1) '황의 정승'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2) 본문에 나오는 예화와 이 글을 통해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각자가 느낀 대로 말해 보자.
	함께하기	2. 멋있는 사람은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기도 한다. 주변에서 겪었던 멋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무엇을 반성했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학습활동	혼자하기	1. 수필은 대체로 차분하고 사색적인 어조를 띤다. 일기를 쓴 자신의 경험과 결부지어, 수필이 차분하고 사색적인 어조를 띠는 이유를 말해 보자. 2. 다음은 작가의 견해가 표명되어 있는 수필 작품들의 제목이다. 이 중 한 작품을 구하여 읽고, 거기에 표명된 작가의 견해가 무엇인지 발표해 보자.

		3. 수필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사색을 담고 있다는 점과 관련지어, 수필을 쓰거나 읽는 의의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함께하기	4. 수필로 쓰기에 알맞은 소재를 우리 주면에서 찾아 제목을 붙여보자. 5. 수필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작품에 따른 활동은 작품 제재만을 위한 활동인 생각 넓히기와 전체적인 중단원에 대한 학습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생각 넓히기에서는 황희 정승이나 작품에서 예로 든 옛 사람들의 멋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주변의 멋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활동이다. 학습활동에서는 수필의 사색적인 성격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 작가의 견해가 직접 드러난 다른 작품을 읽어보는 활동 수필의 기능과 효용에 관해 알아보는 활동이 혼자하기 활동으로 제시 되어있다. 함께하기 활동에는 수필에 적절한 소재를 찾는 활동과 수필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이 있다. 혼자하기 활동과 함께 하기 활동을 살펴보면 혼자하기 활동이 함께하기 활동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혼자하기와 함께하기를 나누어서 친구들과 함께 학습활동을 해보는 것은 좋은 시도이나, 예를 들어 학습활동에서 혼자하기 2번 같은 활동은 작가의 견해가 직접 표명되어 있는 작가의 작품을 골라서 따로 읽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수필을 읽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함께하기에 설정되어서 친구들과 여러 작품을 같이 읽고, 거기에 표명된 작가의 견해를 서로 이야기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중단원 '2. 수필의 감상과 수용'에서는 단원의 목표가 '생활의 멋과 여유에 공감하며 감상한다.'와 '인간의 삶에 대해 사색하며 가치를 내면

화한다.’ 인데 학습활동을 보면 수필의 사색적인 성격이나 적절한 소재 찾기, 감상하는 방법알기 등 수필의 이론적인 특징에 대해 물어보는 활동들이 많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 사색하며 가치를 내면화한다.’ 라는 학습목표는 수필에 담겨진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내면화하는 활동인데 이러한 활동은 생각 넓히기에서 주변에 겪었던 멋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활동밖에 제시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학습목표에 대한 작품의 활동들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단원의 학습 목표에 맞게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협동학습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

1) 수필교육에 적합한 협동학습의 교수-학습 모형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협동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따른다. 협동학습은 개별적인 책임감과 동시에 공동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많은 협동학습의 모형들 중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교사는 끊임없이 수업 전후로 준비하고 점검해야한다. 국어과 협동학습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협동학습이 실제 적용되는 수업과 수업 전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들, 수업 후에 점검하고 평가할 것을 고려하여 국어과 협동학습 모형을 구안한 신헌재·이주섭의 적용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협동학습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어 수업 전반에 걸쳐서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 교사와 학생이 해야 할 교수·학습 요소에 관한 절차이고 이것을 토대로 수업 중에 구체적인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표 11 > 협동학습의 적용 절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 요소	교사-학생 주도성
수업전	소집단 구성 협동학습 운영을 위한 학급 규칙 설명 ↓ 소집단의 공동체 의식 형성 상호작용 기술 훈련	교사주도 학생주도
수업중	학습목표의 명시적인 제시 협동학습의 절차 설명 필요한 기능에 대한 시범보이기 ↓ 다양한 협동학습 모형의 적용 소집단 구성원들의 과제 해결	교사주도 학생주도
수업후	개별 평가 및 소집단 평가 (매시간, 매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등) ↓ 평가에 따른 보상 협동학습 과정에 대한 반성과 개선할 점 논의	자기평가 상호평가 교사평가 교사 주도의 보상

(자료: 신헌재·이주섭(1999), 국어 교육과 협동학습, 한국초등국어교육 제 15집.)

이처럼 국어 수업 전반에 대한 국어과 협동학습 절차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모형은 교과중심 협동학습 중 '읽기 쓰기 통합 모형(CIRC)'과 구조중심 협동학습 중 '팀 인터뷰하기'이다.

읽기 쓰기 통합 모형은 초등학생의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국어과 고유의 협동학습 모형이다. 모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12 > 읽기 쓰기 통합 모형 수업 절차

이질적인 모둠구성 읽기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또는 상, 하의 집단으로 나누고 2명씩 작을 만들어 준 후에 다른 읽기 집단의 두 명의 짝과 한 모둠을 이룬다.
↓
읽기 이해를 위한 직접 교수 읽기 이해를 위해 요약하기, 유추하기, 추론하기 등의 전략들을 교사가 학생에게 직접 교수법으로 가르친다.
↓
이야기 관련 활동 각 모둠별로 이야기에 대한 토론을 한다. 읽기 목적과 새로운 어휘나 배웠던 어휘에 대해 토론을 한다. 이러한 활동이 끝나면 모둠에서 짝끼리 짝과 함께 읽기, 보물찾기, 소리내어 읽기, 낱말의 뜻 알기, 짝의 점검활동, 이야기 관련지어 쓰기 등의 추수 활동을 한다.
↓
평가 이야기에 대한 이해력, 주어진 어휘를 완벽히 학습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
홀로 읽기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독립적으로 다양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조 중심 협동학습은 케이건(Kagan)이 자신의 협동학습 이론을 지칭한 것으로 기존의 협동학습 모형이 대게 한 차시 이상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쉽고 간단한 모형을 개발한 것이다. 구조 중심 협동학습에서 말하는 구조는 학생의 상호작용을 위한 것으

로 수업시간에 부분적으로 협동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케이건(Kagan)은 구조를 암기숙달영역, 사고력 신장영역, 정보교환영역, 의사소통 기술영역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구조들을 그 영역에 따라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암기 숙달 영역에는 번호순으로, 짝 점검, 짝 바꿔 쓰기, 돌아가면서 쓰기 등이 있고, 의사소통기술영역에는 팀 인터뷰하기, 삼단계 인터뷰, 장점과 단점 등이 있다. 이처럼 '팀 인터뷰하기'는 구조중심 협동학습에서 중에 의사소통기술에 속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으나 계획에 의한 질문들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데서 차이점을 갖는다. 활동 구조는 다음과 같다.[29]

표 13 > 팀 인터뷰하기 활동 구조

목적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어진 과제나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 -특정한 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주제나 화제에 대하여 생각을 넓힐 수 있다. -학습 활동에서 주제나 과제에 대하여 구성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시기	-이해나 표현을 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팀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여 친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
절차	① 인터부할 과제와 질문 등을 결정한다. ② 팀 구성원 중에서 먼저 한사람을 인터뷰한다. ③ 차례대로 모든 구성원을 인터뷰한다. ④ 자신이 인터뷰에 응할 차례가 되면 인터뷰에 응한다.

29) 신현재 외(2003), 위의 책, p.236. 표 인용.

지금까지 살펴본 국어과 협동학습의 적용 절차에 따라 읽기 쓰기 모형과 팀 인터뷰를 토대로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모둠의 구성

교사는 학생들의 읽기 수준에 따라서 상, 중, 하 또는 상, 하의 읽기 집단으로 학생들을 나눈다. 이때 읽기 수준이 고루 분포 되도록 하고 학생은 5-6명 정도가 한 모둠을 이룬다. 모둠 안에서 집단 내에서 2-3명씩 짝을 이루어 짝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짝과 활동을 하더라도 모둠 안에서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거나 격려할 수 있다. 읽기 쓰기 모형은 한차시의 수업에만 쓰이는 모형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한 번 모둠을 구성하면 다음에 협동학습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 한번 정한 모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향상 정도에 따라서 모둠을 재구성 할 수도 있다.

나) 교사의 안내

학생들이 본격적인 협동학습을 하기 전에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읽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 유의하여 읽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안내한다. 교사는 수필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단원의 학습 목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글을 읽도록 할 수도 있다.

다) 이야기 관련활동

교사는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 읽기' 활동을 통해서 작품을 읽고 글 속에서 작가의 경험과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스

스로 해석하도록 한다. ‘보물찾기’ 활동은 읽은 작품을 파악하여 이야기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 읽은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모둠 구성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완성한 후에는 짝과 함께 서로 점검하면서 잘 작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서로 점검해 보도록 한다.

라) 팀 인터뷰

생각 넓히기 2번을 참고하여 멋이란 무엇이고, 주변에서 듣거나 경험한 멋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자신은 어떤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팀 인터뷰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팀 인터뷰는 인터뷰에 관한 질문을 모둠 안에서 정하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구성원을 인터뷰한다. 팀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학생들은 활동지에 나온 상호평가의 항목을 기준으로 발표를 들으면서 서로 상호 평가한다. 학생들은 인터뷰를 하면서 상호 평가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 유의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모둠의 구성원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 후 서로의 발표 내용에 관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사회적 상호능력을 기른다.

마) 평가

학생들은 활동지에 제시된 상호평가의 각 항목에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고 완성한 활동지를 제출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하는 중에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평가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활동지를 토대로 개인평가와 모둠평가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둠활동을 통한 평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동지를 제출하여 개인평가를 함으로써 개인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교수-학습 지도안

대단원	Ⅳ. 수필의 수용과 창작	소단원	(3)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	차 시	5/9
학습 목표	-수필에 담긴 생활의 멋과 여유에 공감하며 감상한다. -수필을 읽고 인간과 삶에 대해 사색하며 가치를 내면화 한다. -수필을 읽고 진정한 멋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 절차 및 유의점	시간 (분)
	교 사	학 생		
<수업 전> 모둠 구성	-전 시간에 배운 권근의 <주옹설>의 내용과 교훈에 대해서 물어본다.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협동학습에 대한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학생들을 구성된 모둠으로 나누어 준다. -'멋'이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한다.	-권근의 <주옹설>은 인간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수필이었음을 떠올려 본다.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 -교사의 설명을 잘 듣고 모둠을 구성한다. -'멋'이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 한다.		5′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 절차 및 유의점	시간 (분)
	교 사	학 생		
<수업 중> 읽기 전략	- 이 작품은 일상의 체험과 역사적인 일화 속에서 멋있는 사람, 멋있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멋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는 수필임을 설명하고 체험, 일화, 작가의 생각이 나타난 문단을 구분하며 읽도록 하게 한다.	- 교사의 설명을 듣고, 유의하면서 짝과 함께 글을 읽는다.	짝과 함께 읽기 활동	5´
이야기 관련 활동	-작품의 제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용을 정리하여 활동지에 기록하도록 한다. ・버스 운전기사의 멋 ・예전 선비들의 멋 ・외형의 멋과 진정한 멋 ・진정한 멋 추구 자세	-교사가 제시해 준 구분에 따라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 - 짝과 함께 내용 요약이 잘 되었는지 점검한다.	보물 찾기 활동 짝 점검 활동	10´
팀 인터뷰	-작품과 관련된 활동으로 '팀 인터뷰'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팀 인터뷰를 하면서 모둠원들은 활동지에 제시된 상호평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인터뷰할 질문에 들어갈 내용> ・멋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보기 ・자신의 주변에서 멋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자신은 어떤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교사의 설명을 듣고 인터뷰할 질문을 모둠원들과 상의 한 후에 활동지에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고 차례대로 모든 구성원을 인터뷰 한다. -팀 인터뷰 활동을 하면서 서로 상호 평가한다. <인터뷰 질문> ・멋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이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은 누구 입니까? ・왜 그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나요? ・앞으로 어떤 멋진 사람이 되고 싶나요?	팀 인터뷰를 할 때 모든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순회하면서 지도한다.	25´

<수업 후> 평가	-오늘 배운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준다. -각 모둠 별로 모든 학생이 활동에 잘 참여 했는지 평가한다. ・학생들이 기록한 활동지 참조.	- 교사의 설명을 듣고 정리한다. -각자 기록한 활동지를 마무리하고 교사에게 제출한다.		5′

활동지

단원	Ⅳ. 수필의 수용과 창작 2. 수필의 감상과 수용 (3)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	반, 번호	
		이름	

★내용 정리

구분	내용
어느 버스 운전기사의 멋	
예전 선비들의 멋	
외형의 멋과 진정한 멋	
진정한 멋 추구의 자세	

★ 팀 인터뷰

<질문 및 답변>

1._____

2._____

3._____

4._____

★상호평가 (1점~5점)

평가 항목	1	2	3	4	5
1. 작가의 멋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가?					
2. 인터뷰 질문에 알맞은 답변을 하였는가?					
3. 듣는 이를 존중하면서 바르게 말하는가?					
4. 발표자를 보면서 내용에 공감하면서 듣는가?					

V. 결 론

본 연구는 수필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게 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수필 교육은 작품을 읽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읽고 난 후에 자기성찰과 표출을 통해서 능동적인 글쓰기 활동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필교육은 학습자 혼자서 의미구성을 하고, 글쓰기 활동을 한 후에 적절한 평가나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개개인의 인지적 구성능력과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을 강조한다. 특히 교사 중심의 교육 방법을 지양하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내는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수필 교육의 특징을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할 결과 협동학습을 활용한 수필교육에 주목하였다.

협동학습은 승자와 패자만을 양성했던 경쟁적인 학습구조와 혼자서 모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개별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가족과의 단절과 다양한 인종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협동학습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행동을 기를 수 있는 학습 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과는 다르게 개인의 목표 달성 여부에 모둠 구성원들의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별적인 책임감과 동시에 공동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협동학습은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 방법과는 다르게 학습자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학습 방법이다.

협동학습을 통한 수필교육은 공동의 이해와 생각에 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의 이해능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고, 개개인의 다양한 체험을 경험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글을 읽어 봄으로써 자신의 글쓰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고, 서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때에는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문장의 호응에 관한 의견도 듣게 되므로 어휘력이나 문장력의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협동학습은 이러한 효과적인 측면 외에 모둠 안에서 또래들에 비해 다소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자들의 경우 상호작용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할 수도 있고, 유능한 학습자 한 두 명의 주도 아래 모둠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교사는 항상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협동학습을 적용하고 실패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하는 동안 교실이 산만해지고 무질서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적절하게 통제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협동학습을 활용하여 수필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 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필 작품 중에서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이라는 제재를 선정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협동학습 모형은 작품의 특성과 활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형들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고, 교사가 주어진 수업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모형들을 새롭게 다듬어서 활용할 수 있어 교사의 노력에 따라서 다양한 수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수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협동학습만이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수필 교육이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아래 이루어져 온점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적극적이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자료>

강황구 외, 문학(상)(하), 상문연구사, 2003

구인환 외, 문학(상)(하), (주)교학사, 2004

권영민 외, 문학(상)(하), (주)지학사, 2003

김대행 외, 문학(상)(하), (주)교학사, 2004

김병국 외, 문학(상)(하), (주)한국교육미디어, 2003

김상태 외, 문학(상)(하), 도서출판태성, 2004

김윤식 외, 문학(상)(하),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3

김창원 외, 문학(상)(하), 민중서림, 2004

박갑수 외, 문학(상)(하), (주)지학사, 2004

박경신 외, 문학(상)(하), (주)금성출판사, 2003

박호영 외, 문학(상)(하), 형설출판사, 2004

오세영 외, 문학(상)(하), (주)대한교과서, 2003

우한용 외, 문학(상)(하), (주)두산, 2004

조남현 회, 문학(상)(하),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4

최웅 외, 문학(상)(하), 청문각, 2003

한계전 외, 문학(상)(하), (주)블랙박스, 2004

한철우 외, 문학(상)(하), (주)문원각, 2003

홍신선 외, 문학(상)(하), (주)천재교육, 2004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 인적 자원부, 1997.

『문학(18종 자습서)』, 디딤돌, 2003.

「제 7차 교육과정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의 탐색」,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2001

<단행본>

구인환,『한국 현대 수필을 찾아서』, 한샘, 1993.

구인환 외,『문학교육론』, 삼지원, 2007.

노명완 외,「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김대행,『문학교육 틀짜기』, 역락, 2000.

윤모촌,『수필 문학의 이해』, 미리내, 1989.

이동원,『인간교육과 협동학습』, 성화사, 1995.

신헌재・이주섭,「국어교육과 협동학습」, 한국초등국어교육 제 15집, 1999.

신헌재 외,『국어과 협동학습 방안』, 박이정, 2003.

정문성,『협동 학습의 이해와 실천』, 교육 과학사, 2002.

최지현 외,『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도서출판 역락, 2007.

<논문>

강현희,「수필 수용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주연,「수필 창작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지은,「'자아 바라보기'로서의 수필 쓰기 교육 방안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현정,「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미술수업 분석 연구 :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희경,「수필교육의 효율적 방안 연구 : 제 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민경신,「수필 문학 교육 방법론 고찰 : 중등학교 수필 교재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덕영,「수필 읽기 지도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일수,「협동학습이 학업성취도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지영,「수필의 비판적 읽기 지도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서정원,「구조중심 협동학습이 국어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안수경,「협동학습유형, 작동기억, 메타인지 수준이 학업성취도, 인지공유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성수,「수필 지도에 적합한 수업 모형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이하나,「고등학생 수필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혜인,「수필 교육을 위한 읽기-쓰기 통합 모형 연구 : 7~9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임경심,「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수필 분석 및 지도 방향 연구」, 대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정연화,「수필의 장르적 특성과 교수 학습 방법 :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수필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선미,「교육연극을 활용한 수필 지도방안 연구 : 7차 중학교 국어교재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조영수,「인성교육을 위한 수필지도 교수-학습 방법 연구」, 신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장현,「중학교 수필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최소운,「수필쓰기 교육의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승지,「구조중심 협동학습을 활용한 문학 교수-학습 지도방안」,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한수미,「수필을 통한 읽기·쓰기 통합 지도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홍지연,「쓰기와 수필의 통합적 교육방법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ABSTRACT

A Study on Essay Education Through the cooperative learning

– 7th high school essay 'Literature' textbooks more focused –

Im, Ah young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young people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 ability of to adaption to society is lacking a lot. Through Language Education students social skills and positive relationships can grow to form an effective teaching – learning about how the attention was.

In this study, essay writers work through the education experience of students learning and critical insight and further to reflect on his life by writing an essay to which I think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ink that was very valuable. When and how the essays in education more learner–centered lessons can approach results in a variety of situations. Effective communication and language learning activities to participate in the kidneys and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others can also cooperative learning

groups Professor of education appropriate to this essay – should be considered in learning how.

Chapter Ⅰ recognizes existing lack of discussion about the essays of Education, so they suggest the importance of research using cooperative learning in education.

Chapter Ⅱ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llaborative learning and essay examin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goals and, try to take advantage of cooperative learning in education if there is any significance has looked at.

In section Ⅲ, 7th high school essay 'Literature' textbooks listed in the narrative form and the statement about the work methods, sanctions and looked around.

Chapter Ⅳ to were designed a lesson plan Try using cooperative learning, how to present the works found in the 'Literature' textbooks to analyze the specific works.

In this study, given the classroom teacher through the process and refine new models come on depending on the situation could benefit the efforts of teachers according to the various classes that can be verified. Meanwhile, education of the essay under the guidance of teachers consisting of a unilateral Considering the hot spot more aggressive and learner-centered teaching can be done in that it can be significant in this discussion.